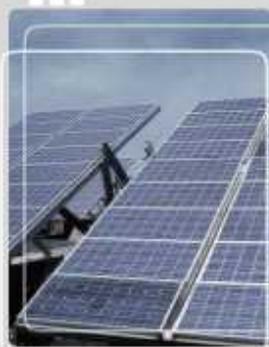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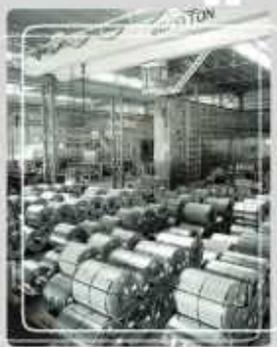


# 2014년 지역별 수출입전망 및 시장여건



# CONTENTS

## 목 차

요 약 / 1

---

I. 개 요 / 2

---

II. 2014년 지역별 수출여건 / 8

---

- |    |                        |
|----|------------------------|
| 8  | 1. 북미(미국, 캐나다)         |
| 13 | 2. 중국권(중국, 홍콩, 대만)     |
| 18 | 3. 유럽                  |
| 21 | 4. 일본                  |
| 23 | 5. 아시아(동남아+서남아) · 대양주  |
| 29 | 6. 중동(북아프리카 제외)        |
| 31 | 7. 중남미                 |
| 33 | 8. CIS                 |
| 34 | 9. 아프리카(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

III. 2014년 지역별 수입여건 / 35

---

- |    |                        |
|----|------------------------|
| 35 | 1. 북미(미국, 캐나다)         |
| 35 | 2. 중국권(중국, 홍콩, 대만)     |
| 36 | 3. 유럽                  |
| 37 | 4. 일본                  |
| 37 | 5. 아시아(동남아+서남아) · 대양주  |
| 38 | 6. 중동(북아프리카 제외)        |
| 39 | 7. 중남미                 |
| 39 | 8. CIS                 |
| 39 | 9. 아프리카(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

**요 약**

□ (전체) 우리나라의 '14년 수출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6,029억 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5,633억 달러 전망

- 무역흑자는 396억 달러로 '13년보다 25억 감소 예상

< 수출입 추이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12년		'13년		'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479	△1.3	5,639	2.9	6,029	6.9
수입	5,196	△0.9	5,218	0.4	5,633	8.0
수지	283	△8.1	421	48.8	396	△5.9
무역규모	10,675	△1.1	10,857	1.7	11,662	7.4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2013년 추정치, 2014년은 전망치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414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수출) 지역 및 품목별 수출 전망

- 지역별 수출

- 아시아(10.5%) 큰 폭 증가, 북미(8.5%), 중동(8.4%), 중국권(7.9%), 유럽(5.2%) 양호
- CIS(3.7%), 중남미(1.9%), 일본(1.5%), 아프리카(1.3%), 대양주(0.2%) 지역은 소폭 증가

- 품목별 수출

- 반도체·무선통신 등 IT 제품은 '13년에 이어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가전과 기계도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도 양호한 수준이 기대되나, 철강·석유 화학제품 등은 부진 전망

□ (수입) 수출 증가로 수입도 증가세로 전환 기대

-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출용 중간재 수입 수요 증가 전망

## I. 개요

□ (전체) 우리나라의 '14년 수출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6,029억 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5,633억 달러 전망

- 세계 주요기관들은 '14년 세계 교역액이 전년보다 4.9~5.2% 증가할 것으로 예측

\* IMF(%) : ('13) 2.9 → ('14) 4.9, EIU(%) : ('13) 3.3 → ('14) 5.2

### <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및 2014년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479	△1.3	5,639	2.9	6,029	6.9
수입	5,196	△0.9	5,218	0.4	5,633	8.0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2013년 추정치, 2014년은 전망치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414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지역별 수출) 아시아 수출 호조, 일본·아프리카 등은 둔화

- 아시아(10.5%)는 기업의 활발한 현지 투자진출과 프로젝트 발주 확대로 큰 폭의 수출 상승세 기대
- 북미(8.5%)·중국권(7.9%) 등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유럽(5.2%) 및 신흥국인 중동(8.4%)·CIS(3.7%)·중남미(1.9%) 수출은 '13년 마이너스 증가에서 회복세로 전환, '12년 수출액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일본(1.5%)·아프리카(1.3%) 등은 '14년 소폭 증가세를 보이더라도 '13년 큰 폭의 수출 감소로 인해 수출액에서 '1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 2014년 지역별 수출 전망 >

(단위 :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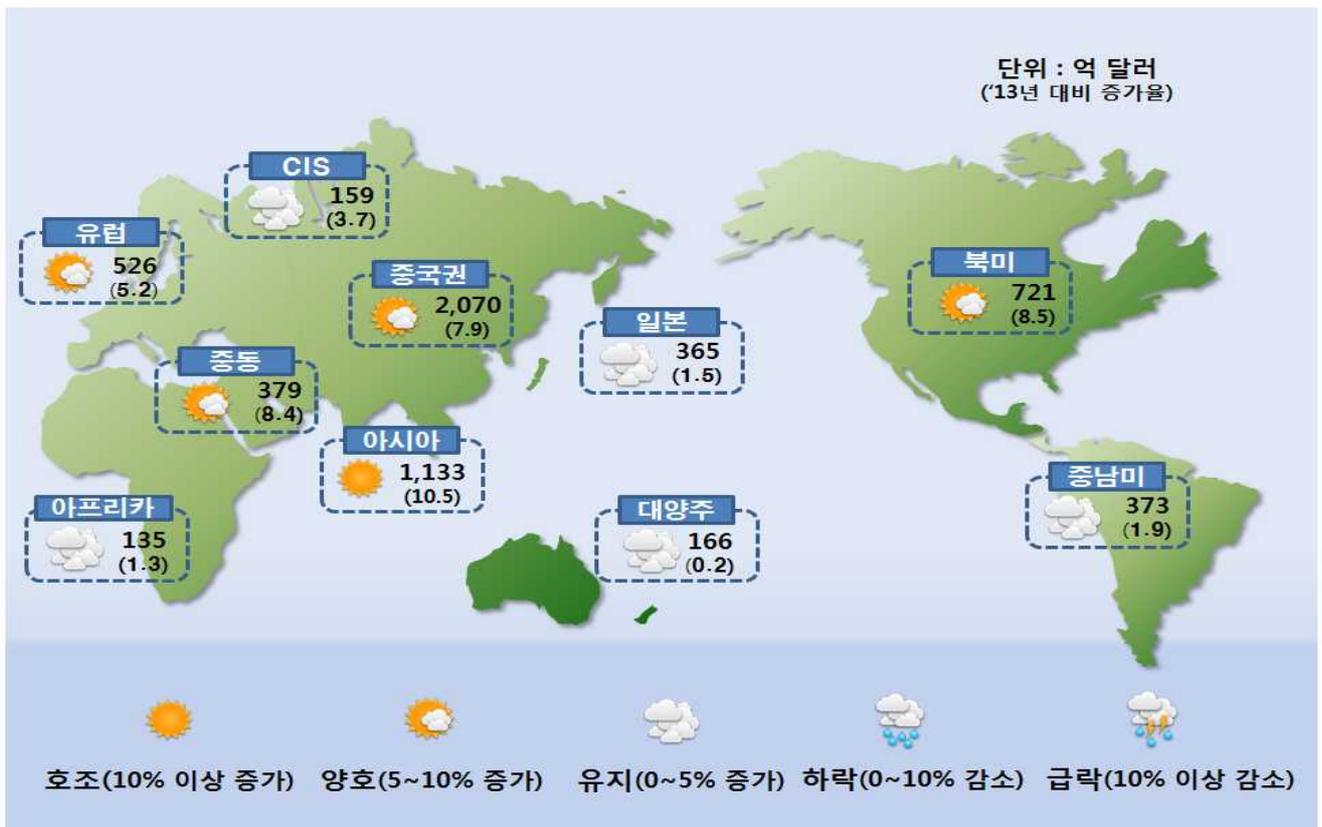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5,479	5,639	2.9	100.0	6,029	6.9	100.0
아시아	943	1,027	8.9	18.2	1,133	10.5	18.8
북미	634	664	4.9	11.8	721	8.5	12.0
중동	361	350	△3.1	6.2	379	8.4	6.3
중국권	1,818	1,919	5.6	34.0	2,070	7.9	34.3
유럽	513	500	△2.6	8.9	526	5.2	8.7
CIS	158	153	△2.7	2.7	159	3.7	2.6
중남미	367	367	△0.1	6.5	373	1.9	6.2
일본	388	359	△7.4	6.4	365	1.5	6.0
아프리카	142	133	△6.2	2.4	135	1.3	2.2
대양주	154	165	7.6	2.9	166	0.2	2.7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2013년 추정치, 2014년은 전망

주2) 지역구분 : 아시아 지역(동남아 + 서남아), 중국권(중국, 홍콩, 대만),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포함), 아프리카(북아프리카 국가 + 사하라이남), 중국권(중국, 홍콩, 대만)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830개 정보원 의견 종합)

### < 2014년 지역별 수출 기상도 >



## □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 ▶ IT 시장의 세계적인 급성장으로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도 양호한 수출 상승세 기대
- ▶ 하지만 철강·석유화학제품 등은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과 수요 회복지연으로 수출 둔화 우려

- (자동차 및 부품) 국산차는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속할 전망이며, 현지 생산공장 가동 확대로 자동차부품 수출 또한 증가 예상
  - FTA 발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으로 자동차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동지역도 수입수요 증가세, 부품은 신흥시장에서 수출 지속
  - \* '13년 1~10월 자동차 수출은 독일(67.8%↑), 사우디아라비아(15.1%↑), 미국(12.9%↑) 등에서 호조인 반면 브라질(46.1%↓), 요르단(16.8%↓) 등은 하락세
  - \* '13년 1~10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對브라질 45.4%, 對중국 29% 증가
- (기계류, 철강) 신흥국 산업진흥 정책에 따라 기계의 수요는 증가세, 글로벌 수요 정체로 철강 수출은 둔화 전망
  - 기계류는 신흥시장의 제조업 장려, 각종 정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엔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한국제품을 선호하여 수출 증가 예상
  - \* '13년 1~10월 기초산업기계의 수출은 對베트남 185.8%, 對브라질 90.6% 증가
  - 철강은 중국과 미국 등의 공급과잉과 일부 지역 수입규제 등의 이유로 수출 둔화 우려
  - \* '13년 1~10월 中 조강·생철·강재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8.3%, 6.5%, 11.6% 증가(국가통계국)
- (석유제품) 싱가포르·미국·호주 등의 지역은 수요증가가 지속되는 반면, 중국·중동 등의 지역으로 수출은 둔화 예상
  - \* '13년 1~10월 석유제품 수출 : 對미국 25.5% 증가, 對중국 13.2% 감소
- (반도체)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발전,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13년 1~10월 한국의 반도체수출은 13.2% 증가

- (석유화학) 현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는 수출 호조세가 기대되나, 중국·호주 등은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하락으로 수출 부진 예상
  - \* '13년 1~10월 석유화학 수출 : 對인도 17.4% 증가, 對호주 12.2% 감소
  
- (LCD, 가전, 컴퓨터) 경기가 점차 호전되면서 소비도 회복세로 전환, LCD와 가전 수출은 양호한 반면 컴퓨터는 부진할 전망
  - LCD는 모바일기기 확대 및 한국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 가전은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시장뿐 아니라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컴퓨터는 중저가 브랜드와의 경쟁, 현지 수요 둔화 등으로 대체로 현상유지 또는 수출 부진 전망
  
- (섬유 및 의류) 중국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수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아시아 지역은 호조 전망
  - \* '13년 1~10월 섬유수출은 對베트남 19.8%, 對필리핀 10.0% 증가
  
- (무선통신기기)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산 스마트폰 해외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
  - \* '13년 1~10월 무선통신기기 수출 : 對미국 39.7%, 對중국 33.0%, 對베트남 105.8% 증가
  
- (선박류) 유럽 및 미국 경기 회복으로 선박 수주 기대
  - 덴마크 원유시추 선박과 대형 컨테이너 수주로 수요 증가, 미국 LNG 수송선 등 특수선박 발주 증가 예상
  - \* '13년 1~10월 선박류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

< 2014년 주요 품목의 지역별 수출 전망 >

품목명 (MTI코드)	2014년 연간 전망(2013년 대비 증가율)										
	전체	북미	중국권	유럽	일본	아시아	대양주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일반정밀기계 (71,72,73,75,79)											
자동차 (741)											
자동차부품 (742)											
평판디스플레이 (836)											
반도체 (831)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812)											
가전 및 부품 (82)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813)											
섬유 및 의류 (4)											
철강제품 (61)											
석유화학 (21)											
석유제품 (133)											
선박류 (746)											

호조(10% 이상 증가)   
 양호(5~10% 증가)   
 유지(0~5% 증가)  
 하락(0~10% 감소)   
 급락(10% 이상 감소)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830개 정보원 의견 종합)

## □ (수입) 수출용 중간재 등 수입수요 상승

▶ '14년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면서 수출용 중간재 및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재, 자본재 수입이 확대되는 반면, 원자재 수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수입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국권(12.1%), 유럽(10.8%), 아시아(8.4%)로부터 수입수요 확대로 '14년 수입은 8.0% 증가 전망
- 에너지·광물자원 등 원자재보다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 2014년 지역별 수입 전망 >

(단위 : 억달러, %)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5,196	5,218	0.4	100.0	5,633	8.0	100.0
아프리카	76	78	2.6	1.5	88	12.6	1.6
중국권	969	981	1.2	18.8	1,099	12.1	19.5
유럽	585	643	10.0	12.3	713	10.8	12.7
아시아	602	625	3.9	12.0	678	8.4	12.0
일본	644	625	△2.8	12.0	676	8.1	12.0
CIS	126	122	△2.7	2.3	130	6.2	2.3
북미	486	451	△7.1	8.6	478	6.1	8.5
중동	1,262	1,262	△0.0	24.2	1,333	5.6	23.7
중남미	197	201	1.9	3.9	209	3.9	3.7
대양주	249	229	△8.2	4.4	227	△0.8	4.0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584개 정보원 의견 종합)

품목명 (MTI코드)	전망	2014년 전망(2013년 대비 증감률)
원유 및 가스 (131, 134)		▪ 원유 수입이 중동지역은 둔화되는 반면, 유럽, 아시아 등 기타지역은 증가, 천연가스는 대체로 증가세 예상
반도체 및 장비 (831, 732)		▪ 한국 IT 관련 시장의 확대로 반도체는 수입이 증가, 장비는 수입 둔화 전망
철광석 (112)		▪ 철강 수요부진과 산업경기 하향으로 철광석 수요 부진

호조(10% 이상 증가)    양호(6~10% 증가)    유지(0~5% 증가)

하락(0~10% 감소)    급락(10% 이상 감소)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584개 정보원 의견 종합)

## II. 2014년 지역별 수출 여건

### 1 북미 [8.5% 증가] \* 미국, 캐나다

- ▶ 미국 경제는 양적완화 조치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4년 2.6%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 제조기업의 아웃소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 경제는 미국의 경제 회복에 따라 '14년 2.2%의 동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의 對북미 수출은 '13년 4.9%에서 '14년 8.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가. 미국

#### □ 최근 경제 상황

- 재정정책의 불확실성과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재고투자<sup>1)</sup>·주택투자 호조 등 경기회복 모멘텀 지속
  - 미국경제 성장률은 '13년 1.6%에서 '14년 2.6%로 회복 전망
  - \* '13년 美 경제성장률(%) : (1Q) 1.1 → (2Q) 2.5 → (3Q) 2.8
  - \* '13년 재고투자액(연간 환산액, US\$억) : (1Q) 422 → (2Q) 566 → (3Q) 860
  - \* '13년 주택투자 증가율(%) : (1Q) 12.5 → (2Q) 14.2 → (3Q) 14.6
- 연방정부 폐쇄, 재정정책 불투명으로 민간소비 둔화,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또한 부진한 상황이나 제조업은 확장세 지속
  - 11월 소비자신뢰지수<sup>2)</sup>(미시건대 기준)는 72.0으로 '11년 12월 이후

1) 재고투자(Inventory investment)는 기업의 투자활동 중 재고품을 증가시키는 투자활동 또는 증가분을 가리키며, 금융사정에 민감하여 변동이 심하고 특히 재고의 증가(감소)분을 중요시한다.

2) 소비자신뢰지수(CCI; Consumer Confidence Index)는 미국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의 하나로 미국 소비자의 경기 판단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지수는 현재의 지역경제상황, 고용상태와 6개월 후의 지역경제, 고용 및 가계수입에 대한 전망을 조사해 발표하는데, 지난 1985년 평균치를 100으로 기준 삼아 비율로 표시한다.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ISM 제조업지수<sup>3)</sup>는 10월 56.4로 '11년 4월 이후 최고치 기록

\* 美 설비투자 증가율(%) : '12년 7.3 → '13.1Q)  $\Delta$ 4.6 → 2Q) 4.7 → 3Q) 1.6

○ '14년 미국경제는 전반적 회복세 전망

- 주택시장<sup>4)</sup>과 증시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경기회복 흐름은 지속될 전망
- 기업들의 유동성자산 증가, 은행 대출기준 완화 등 투자여건 개선으로 설비투자가 회복됨에 따라,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또한 개선 예상
- \* '13년 2분기 기준 美 비금융(Nonfinancial) 기업들의 유동성자산은 사상 최고치인 1.8조 달러 규모
- 다만, 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Grand Bargain)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 존재

## □ 시장 동향

○ 근검·절약형의 소비트렌드 정착

-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여력은 좋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지속된 근검·절약으로 여전히 소비자들은 가격조건에 매우 민감
- \* 美 중간(Median) 가계소득 추이(US\$) : ('12. 6월) 50,964 → ('13. 2월) 61,664 → ('13. 9월) 52,529

○ 해외진출 미국기업들의 U턴 증가 추세

- 신흥시장 인건비 지속 상승, 물류비용 절감 및 미국산 'Made in USA' 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으로 美 기업들 U턴(Reshoring) 추세

3) ISM 제조업지수란,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매월 첫째 영업일에 발표하는 제조업지수 미국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미국 20개 산업의 300개 제조업체들에게 신규 수주, 생산, 고용, 물품 인도, 재고 등에 관한 설문을 돌리는 식으로 산출된다. 지수가 50을 넘을 경우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된다는 것을, 50 이하일 경우 수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이 '13년 8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12.8% 상승으로 '06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S&P Dowjones Indices and Corelogic)

- \* 중국 제조업 시간당 평균 임금은 '00년 0.52달러에서 '10년 4.5달러로 연평균 19% 증가
- \* 美 대형 제조업체의 54%는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의향(보스턴컨설팅)
- \* (Ford 社) 멕시코 픽업트럭 생산공장 → 미시건, 오하이오 州 이전  
(GE 社) 중국과 멕시코 냉장고 및 온수기 생산공장 → 켄터키 州 이전 등
- e-Commerce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확산, 근검·절약형 소비패턴 정착으로 온라인 제품 구매 및 쇼루밍(showrooming)<sup>5)</sup> 증가
  - \* '13년 3분기까지 美 온라인시장 매출액은 1,480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 셰일가스(Shale Gas) 혁명
  - 채굴기술의 발달로 '06년도 이후 셰일가스 개발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
  - 가스시추관, 파이프라인 강관, 가스압축기 등 개발관련 기자재 수요 및 LNG 수송선 등 특수선박 발주 증가 예상
  - \* 美 셰일가스 생산량(큐빅피트) : ('05) 7,500억 → ('11) 7.85조 → ('40) 16.7조(예상)
  - \* 美 천연가스 생산 중 셰일가스의 비중(%) : ('05) 4.1 → ('11) 34.1 → ('40) 50(예상)
- 미국 바이어의 재고부담 최소화 성향으로 對美 수출 부정적 영향
  - 美 바이어, 물류창고 보유업체를 선호하여 국내업체에 비용부담으로 작용

## □ 2014년 수출 여건

- 미국 경제회복세로 수입 수요 증가 예상
  - 재정긴축 강도 완화 및 양적완화조치 축소(QE Tapering) 등 연준의 출구전략 관련 불확실성 감소로 경기회복세 확대 전망
  - \* 美 재정감축 규모는 '13년 GDP 대비 2.5%에서 '14년 0.75%로 감소 전망(IMF)

5) 쇼루밍이란,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 디자인이나 사양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실제 제품은 가격이 더 저렴한 온라인 쇼핑사이트로 구매하는 소비행태를 말한다.

- 對美 주력 수출품목의 현지 수요 호조
  - (자동차)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 분출로 자동차 판매 호조세 지속
    - \* '13년 1~10월 對美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특히 경트럭 판매 급증
  - (자동차부품) 한-미 FTA 발효 후 가격경쟁력 제고, 현지 자동차 메이커들의 아웃소싱 확대 등 지속
    - \* '13년 1~10월 중 對美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 증가
  - (무선통신기기) 스마트폰 보급 확산, 삼성전자 신제품(Galaxy S4) 출시 등으로 현지 시장점유 꾸준히 확대
    - \* '13년 1~10월 중 對美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
  - (반도체) 모바일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 확대, D램 및 낸드플래시 단가 상승 등으로 對美 수출 회복
    - \* '13년 1~10월 중 對美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
- 자동차·스마트폰 등 주력 수출품목 해외생산 확대로 對美 직접 수출 효과 일부 상쇄
  - \*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해외생산 비중(%) : ('13) 15 → ('14) 80
- 철강은 미국내 공급과잉 현상 지속으로 對美 수출 부진 예상
- 엔저와 원화 강세 지속으로 對美 수출제품 경쟁력 악화 우려

◆ 주요품목별 엔저/원화 강세 전망 (자료: 현지 지상사 관계자)

- (기계류) 국산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 엔저·원화 강세 지속시 피해 불가피
- (가전) 국산제품은 일본제품 대비 비교우위, 제품의 Mix 변화 및 차별화로 대응 가능
- (자동차) 최근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 가격인하 여력이 적고 국산 자동차도 가격보다 품질로 승부하고 있어 영향력 미미

## 나. 캐나다

### □ 최근 경제 상황

- 캐나다 경제, 미국과 유럽 경제 회복으로 긍정적 영향
  - 美 구매관리자지수(PMI)<sup>6)</sup>는 '13년 56.4을 기록, EU 경제성장률은 '13년 2분기 0.7%로 경기회복의 기대감 증폭
  - \* 캐나다 경제성장률 전망(%) : (IMF) ('13) 1.6 → ('14) 2.2, (OECD) ('13) 1.4 → ('14) 2.3

### □ 시장 동향

-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경기 부진 지속
  - 외국인 투자 제조기업의 생산라인 축소 및 폐쇄 추세와 설비투자 축소로 산업용 설비 및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
  - \* 온타리오주 (GM) 오사와 생산라인 축소, (US Steel) 100년된 해밀턴 제철소 영구폐쇄 결정
  - \* 철강의 경우 수입규제 강화(반덤핑·상계관세 등)로 한국제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
  -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및 가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 선호

### □ 2014년 수출 여건

- 캐나다의 최대 수출대상국 美 경기회복으로 전반적 성장 예상
- 캐나다-EU FTA('13년 10월 체결, '15년까지 발효)로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
  - (자동차) 유럽산 수입관세 철폐시, 프리미엄 국산차의 경쟁치열
  - (선박) 한국산 선박 최고 25% 관세 부과로 유럽산 관세 인하시 수출부진 예상
-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한국 제외('15년 1월부터)

6)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 지표를 의미한다. 지수가 50인 경우에는 이전 달에 비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수축을,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팽창을 의미한다.

2

중국권 [7.9% 증가] \* 중국, 홍콩, 대만

- ▶ 중국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14년 성장률은 7.0~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시진핑 정부의 新도시화 추진에 따른 진출기회, 직간접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진작, 대도시 자동차 구매제한정책 연기 등으로 수출여건 개선 기대
- ▶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만과 홍콩도 글로벌 수요 회복세로 '14년 증가 전망

가. 중국

□ 최근 경제 상황

- '3중전환' 이후 본격적 경제구조 개혁 착수로 성장률 둔화 예상
  - 도시화 진행에 따른 투자 및 수출 확대에 경기 연착륙
  - \* '14년 중국경제성장률 전망(%) : 7.3(IMF), 7.0(피치), 7.4(중국사회과학원)
  - '14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3년 20% 보다 하락한 17% 내외 전망
  - \* 지방정부의 재정투입, 부동산 투자 확대 등 성장정책의 점진적 축소, 투자의 성장기여도 점차 하락 예상
- 소득수준 상승과 정부 부양책을 통한 소비 진작
  - '13년 7월부터 지속된 정부의 직·간접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소매 판매 증가 예상
  - \* 지역별 임금격차 축소와 지속적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반적인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반부패 정책에 따른 고급 소비재 수요는 타격을 받을 전망
- 미국, 유럽의 경기회복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및 미국과 통상주도권 둘러싼 물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
  - 中 FTA 체결 가속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을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집중 전망

## □ 시장 동향

-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한 내수소비 확대 추세
  - 인터넷·홈쇼핑 시장의 급속 성장과 소비수준 향상이 맞물려 소비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전망
    - \* 中 주요 유통채널의 연평균 성장률(%): 온라인 50, 홈쇼핑 30, 오프라인 20
  - 특히, 젊은 중국 세대들의 온라인 마켓 내 화장품·식품·의류 등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로 관련 제품 진출 유망
- 산업구조 고도화로 정부차원의 서비스업 전면 육성
  - 중국 정부는 내수 촉진을 위해 서비스업 비중을 확대, 관련산업 육성책 대폭 강화, FTA 발효로 서비스업 진출 기회 확대 전망
    - \* 서비스업 GDP 비중(%): ('10) 43 → ('15) 47, 장려업종 수: 33개 → 112개
  -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중국 정부의 기간산업 및 높은 진입장벽의 각종 서비스업 점진적 개방 기대
  - 중국의 교육·의료·법률·금융 등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한국보다 대부분 비교열위, 관련 기업의 시장 선제공략 기대
- 시진핑 정부의 新도시화 추진으로 내륙도시 발전 가속화 전망
  - 도농간 격차 해소,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시진핑 정부의 新도시화 정책 세부계획 '14년 중 구체화 예상
    - \* 중국 도시화율 추이(전망, %) : ('11) 51 → ('12) 52.6 → ('20) 60, 中 정부 '20년까지 7,200조원 투자
  - 新도시화에 따른 유관산업<sup>7)</sup> 진출 기회 및 내륙지역 소비재·서비스업 진출도 유망

7) IT SOC, 환경, 의료, 엔지니어링, 에너지 등

## □ 2014년 수출 여건

- 경제성장보다 내실에 주력한 개혁으로 중국경제 점진적 개선
  - 고정자산 투자 감소는 중국이 대규모 투자 기반의 성장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의미
- 우리나라의 '14년 對中 수출은 대내외 수요 회복에 따라 증가세 지속되고 '13년 수출 전망치에 비해 소폭 상승 예상
  - 내년 주요국 경기가 점차 호전됨에 따라 中 교역여건 개선 전망
  - 한국의 '13년 3분기 對中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9.6%로 한국 수출 호조세 견인의 주 원동력이 됨
- 위안화 대비 환율은 '14년 6위안 돌파 예상으로 환율부담 가중에 따라 對中 수출 증가율 소폭 하락 가능성
  -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지연으로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품목별 수출 전망
  - (자동차) 대도시 자동차 구매제한정책 시행이 '15년 이후로 연장되어 선수요 집중, 新도시화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요확대 등 긍정적 요인
    - \* '14년 中 자동차 시장 8%대 안정적 성장세 전망
  - (무선통신기기) 스마트폰에 대한 중국 소비자 수요는 도시에서 농촌까지 확산, '14년 10% 이상의 증가 예상
  - (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 수출국 1위 중국 현지의 해당산업 구조조정, 자체 제품생산 비중 확대로 수출 점차 감소 전망
  - (철강)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과잉, 시장경쟁이 치열해 수출 둔화

## 나. 대만

### □ 최근 경제 상황

- 대외교역과 민간소비는 회복세, 민간투자는 하락세
  -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만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회복에 민감
    - \* 대만의 GDP 성장률 전망치(%) : ('13) 3.49 → ('14) 3.11 (대만경제연구원)
    - \* '13년 1~8월 수출액 2,013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45%↑), 수입액 1,790억 달러(0.93%↓)
  -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부터 점차 회복, '14년 호조 전망
    - \* '14년 민간소비 성장률 1.84%, 1인당 GDP 21,059달러, 소비자물가지수 1.04%(대만경제연구원)
  - 부동산 침체·은행업 대손위험 등으로 민간투자는 전년대비 1.29% 하락 전망

### □ 시장 동향

- 대만 정보통신산업은 수요에 맞춘 발 빠른 변화
  - 신홍시장 대상 저가상품 개발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상업용 4G 네트워크 보급 확대, '14년 상반기 5G기술 개발도 추진
-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대만의 6대 신홍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
  - \* 세계의료기기 시장 규모(달러) : ('12) 3,064억 → ('15) 3,684억 (BMI)
-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예상
  - 대만 경제부는 해외 신홍시장 진출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집중 추진
    - \* '13분기 2분기 태양광 관련 상장회사의 총 매출이익은 7~13%에 달함

### □ 2014년 수출 여건

- 中 내수시장과 신홍국 금융리스크, 대만 국내정세는 경제 성장의 변수
  - 수요는 꾸준하게 보이나 저가브랜드와의 경쟁 구도로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소폭의 상승 전망
  - 대만 정세와 중국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및 철강제품은 현상유지 예상

## 다. 홍콩

### □ 최근 경제 상황

-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완만한 성장세 실현, '14년도 지속 예상
  - 미국 및 신흥국 경기침체에도 '13년 성장률 2.5%~3.5% 예상
  - \* 교역액 '13. 1~9월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홍콩무역발전국)
  - 홍콩 내수시장을 견인하는 중국인 관광객, '13. 1~9월간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
  - 일본 및 BRICs 국가의 경제 회복세 여부, 중국 소재 홍콩업체의 제조원가 상승 등이 홍콩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 전망

### □ 시장 동향

- 개정된 '중국 여행법'으로 홍콩 소비시장 불안
  - 중국이 저가 해외관광을 규제하면서 홍콩 소비시장에 타격, 중국인의 소비 트렌드 또한 명품에서 일상 생활용품 구매로 실질적인 변화
  - \* 국경절 연휴기간 홍콩을 찾는 중국 관광객 전년대비 30% 감소
- 한류에 따른 한국제품과 문화콘텐츠 선호 지속
  - 식품·화장품·가정용품·의류·전자제품 등 다양하게 한류 주도

### □ 2014년 수출 여건

- 해외시장 수요 개선 추세로 한국제품의 對홍콩 수출도 회복
  - 단, 중저가의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이 우려되어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필요
- 무선통신기기는 한국 제품의 신뢰로 꾸준한 수출 증가세 기대
  - \* 무선통신기기의 對홍콩 수출증가율(%) : ('12) 34.2 → ('13) 57.8
- 석유제품, 엔저로 인해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둔화(수출 58% 감소)

### 3 | 유럽 [5.2% 증가]

유럽 경제가 '14년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되고 한-EU FTA 발효 3주년을 맞아 승용차, 타이어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폴란드 등에서 EU기금을 활용한 829억 달러의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13년 2.6% 감소에서 '14년 5.2% 증가 전망

#### □ 최근 경제 상황

- '13년 11월 EU 경기체감지수<sup>8)</sup>는 96.9로 7개월 연속 상승, '11년 8월 99.0 이래 최고치 기록(EU집행위)
  - \*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 : (IMF) ('13)  $\Delta$  0.4  $\rightarrow$  ('14) 1.6  
(OECD) ('13)  $\Delta$  0.6  $\rightarrow$  ('14) 1.1
-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경기 회복으로 유럽경기 안정세
  - (스페인) '13년 하반기부터 2년의 경기침체 탈출(3분기 성장률 0.1% 기록), 스페인 정부는 '14년 0.7%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내수경제 호전 기대
  - (이탈리아) '13년 4분기부터 회복세 돌입, '14년 0.7% 성장 전망
  - (그리스) '13년  $\Delta$ 4.2%, 무역·재정 적자개선으로 '14년 0.6% 성장 기대

#### □ 시장 동향

- 가격에 민감한 소비심리 확산
  - (프랑스) '경제 애국주의' 정책으로 자국산 소비 증가세
  - (영국) 가처분소득 하락에 따른 저가 브랜드 선호 현상 지속

8) 경기체감지수는 기업과 가계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스페인) 유통업체 브랜드(PB) 제품 등 초저가 마케팅 강세, 중고 판매 및 중고 수리업의 활황
- (이탈리아) 10월 부가가치세 1% 인상으로 3% 소비 감소 예상
  - \* 부가세 인상대상 품목은 전체의 70%로 휘발유 리터당 1.5센트, 디젤 1.4센트, LPG 0.7센트 인상으로 서민물가 타격 예상
- (벨기에)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 고려하는 소비성향, 저축 증가
  - \* '13년 6월 기준 벨기에 총 예금액은 약 2,47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 기록
-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 활발
  - (폴란드) '14~'20년 EU 기금 중 프로젝트 투자 예산으로 폴란드에 829억 유로 배정이 예상되면서 28개국 중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
  - (크로아티아) '14년 EU 가입으로 28억 달러의 EU기금 확보하여 공공프로젝트 추진

## □ 2014년 수출 여건

- 한-EU FTA 3주년('11. 7. 1 잠정발효)으로 추가관세 철폐 효과 기대
  - '14년 7월 일부품목의 단계별 추가 관세철폐로 수출경쟁력 상승효과 기대
    - \* '14년 3~5년 단계적 관세철폐 적용품목 : 승용차, 타이어, 합성수지, 자전거, 신발, 광학기기 부품, 카 스테레오, 영상기록재생용기기 등
- 對 EU 수출은 '14년 회복세로 국가별 전략 수출품목 공략필요
  - \* '13년 1~10월 對EU 수출증가율(%) : 합성수지 33.5, 자동차 13, 무선통신기기 8.0
  - (독일)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품목 선전, 이외 IT 기술 융합형 생산시스템, 탄소섬유 강화소재 등 유망
    - \* 독일 완성차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 독일 직수출보다 제3국 우회수출 기회 증가
    - \* 맥킨지(Mc Kinsey)에 의하면 탄소섬유 강화소재의 비중은 연간 20%씩 증가 전망

- (프랑스) 친환경·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 등 34개 핵심사업 육성 정책으로 관련 자재 및 장비 수요 증가 전망
- (영국) 한-EU FTA 인식이 높아지고 및 가격경쟁력 확보로 한국산 제품 관심 증가
- (스페인) '13년 3분기부터 경제성장세로 전환하면서 '14년에는 TV·타이어·가전·휴대폰 등 소비재 중심 소폭의 판매증가 전망
- (이탈리아) '15년 밀라노 엑스포로 경제성장 기대, MICE(전시·컨벤션) 산업진출 유망
  - \* 밀라노엑스포의 총 투자 규모는 27억 유로, 간접투자 포함 118억 유로
- (네덜란드) '13년 선박 수주로 '14년 하반기 선박 수출 증가 예상
- (스위스) 스위스-중국 FTA('13. 7월 체결) 발효시 한·중·일 수출 경쟁 심화 예상
- (오스트리아) 경기침체 및 현지공장 공급 확대로 자동차·핸드폰 등 주력 품목 수출부진 예상
- (헝가리) 의료기기·치과용 의료기기 및 건설 시장 호조
  - \* 헝가리 치과의료 시장 매출은 19% 상승('13.9월), 토목 신규 발주 52.8% 증가('13.7월)
- (그리스) 점진적 내수회복 및 녹색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수출 증가 전망
  - \* '20년까지 26억 달러 규모의 폐기물처리·수처리 등 환경산업 프로젝트 진행 예정

## 4 | 일본 [1.5% 증가]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14년 1.2%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14년 4월부터 소비세 인상(5%→8%)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은 '13년 △7.4%에서 '14년 1.5%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 최근 경제 상황

- 엔화 약세와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요기업 수익 급증
  - '13년 4~9월 영업이익 평균 39%, 매출액 평균 10.3% 증가
  - \* 엔화 대미 환율(엔) : ('12.12.16) 83.8 → ('13. 5.22)103.7 → ('13.11. 8) 99.1
  - \* 닛케이 지수 평균(엔) : ('12.12.16) 9,828 → ('13. 5.23) 15,942 → ('13.11. 8) 14,086
- 일본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 (고용) '13년 9개월간 취업자 연속증가(51만명), 실업률 4%(9월)
  - (임금) 하계 성과급 35개 업종 중 25개 업종에서 평균 1.64% 상승
  - (소비) 소매판매액 증가 (7월)△0.3% → (8월) 1.1% → (9월) 3.1%
  - (설비투자) 전산업 설비투자 금액 증가 (1분기) △14.9 → (2분기) 0%
-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되나 소비세 인상 등 위축요인 존재
  - 일은 경제성장률 하향전망(%) : ('13) 2.8 → 2.7 ('14) 1.3 → 1.5
  - \* 민간 41개 조사기관 경제성장 예측 평균치('13.10월, %) : ('13) 2.8 → ('14) 0.7
  - \* 일 정부, 임시국회에 성장전략 구체화 법안(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특구) 제출
  - '14년 4월 소비세 인상(5% → 8%) 이후 소비 급감 예상
  - \* 연봉 600~650만 엔 4인 가족기준 평균 8만 8,388엔의 세금 부담 증가
  - \* '필요시 과감히 지출, 평소엔 절약하는 소비의 양극화는 지속될 예정(일본종합연구소)

## □ 시장 동향

- 연령대별 소비성향의 변화
  - 젊은 층은 '과시형 소비'에서 '일상에서 사치스러운 소비'로 변화(노무라총연)
    - \* 외식(10%)과 의류·패션(8%) 소비 증가, 자동차(△8%)와 여행비용 지출 감소
    - \* 15~29세 선호 소비분야(복수)는 의류·패션(55%), 취미·오락(52%), 교제비(42%)
  - 60세 이상 고령층은 저축지향형에서 탈피하고 취미 등에 지출 증가(하쿠호도 광고기획사 조사)
    - \* 40~60대 남녀가 지출 희망분야 : 1위 여행, 2위 취미, 3위 식생활 순
- 일본 유통업체의 치열한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전략
  - '14년 4월 소비세 인상에 대비하여 '절약형 지출'에 적합한 PB 기획 및 개발
- 통신판매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 '12년 4월~'13년 3월 기간 동안 통신판매 매출 5조 5,100억엔(전년 대비 6.3% ↑)으로 14년 연속 증가 경향 지속(일본통신판매협회)
    - \*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에 따른 통신판매 시장, B2B 시장 성장이 원인

## □ 2014년 수출 여건

- 엔저 영향으로 국내업체 수출 감소 우려
  - 제품 차별화와 가격을 반영한 신제품 출시 등 수출 대비책 마련 필요
    - \* 기존 한국산 부품 위주에서 텔레비전으로 새로운 수출 분야 수요 증가
  - 엔저 영향으로 대일 수출 신규거래선 발굴 지연으로 수출 소폭 감소 가능성
    - \* 대일 수출기업 엔저관련 애로('13년4월) : 채산성악화(39%), 신규상담애로(30%)

- '14년 일본기업의 수출 및 해외조달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 엔저로 가격경쟁력 상승, '13년 7월 이후 수출 첫 회복(J커브효과)
  - 소비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외 조달확대 및 제품 단가인하 요청 가속 전망
    - \* 플랜트기업 K사는 공공사업에서 해외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용검토
    - \* 전자부품기업 K사는 설비 교체 시 한국산 수입을 검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해외의 저렴한 제품 수입을 필수로 인식
  - 지속적인 엔저로 애로를 겪는 일본기업도 존재
    - \* 한국에서 주방용품을 위탁 제조하는 I사는 가격유지 위해 한국 협력공장을 중국으로 이전, 자동차부품 수입 D사는 '13년 초부터 신규 오더에 애로

5

아시아 [10.5% 증가] / 대양주 [0.2% 증가]

가. 동남아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확대, 내수시장의 소비 활성화,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 의한 기자재 수요 증가, 확고한 한국산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으로 아시아 지역 수출은 '13년 8.9%에서 '14년 1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경제 상황

- 아세안 국가 경제성장률, '13년 5.0%에서 '14년 5.4%로 상향 전망(IMF)
  - (인니) 세계 경기부진 중에 내수와 수출 바탕으로 6.0%대 성장 전망
    - \* '14년 현지 총선(4월)과 대선(7월)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규모 지출 예상
  - (태국) 세계경제 회복과 바트화 약세 등으로 수출 증가세 회복
    - \* 태국 정부는 수출증가율을 '13년 4.6%에서 '14년에는 7.0%로 상향 전망

- (베트남) 제조업 분야 투자유입 증가와 외투기업 수출로 성장 기대
  - \* 베트남 외투기업의 수출 비중은 '13. 1~10월 기준 총 수출액의 66.8% 차지
- (필리핀) 4개 분기 연속 7%대 경제성장률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호조세를 보였으나, 하이엔 태풍 영향으로 GDP 1~2% 감소 전망

## □ 시장 동향

### ○ 내수시장의 성장과 소비 활성화

- (인니) 자동차·철강·모바일·제약 등의 성장세 지속 전망되나, 정부의 수출산업 육성 및 관세 인상정책('13.8월)으로 진출확대 제약
- (싱가포르) 경제성장 지속과 민간소비 활황으로 외식 및 여가 관련 용품 시장 성장
  - \* 싱가포르의 여가용품 소매시장은 '13년 7월 14.9%, 8월 20.5% 급성장
- (말련) 소득 수준 향상 및 도시거주 인구 확산으로 소비에 변화
  - \* '14년 1인당 국민소득은 '09년 대비 37% 증가, 극장·외식 등 도시생활 관련 소비 확산
- (베트남) 생필품 소비 꾸준히 증가, 화장품·자동차·가정용 전자 소비 감소
  - \* 일용소비재(FMCG)<sup>9)</sup> 시장 성장률(%) : 베트남(21.5), 인도(18.3), 중국(14.6)
- (태국) 중산층 증가로 디지털 기기 및 데이터 구매력 증가
  - \*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 사용비중이 60% 이상

### ○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 추진 지속

- (말련) 각종 도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 \* 반팅-타이핑 서해안 고속도로, 평가란 석유화학 복합 플랜트 건설, 항공교통 관제센터 건설, 고속 광대역 통신망 1,000개 통신 송전탑 건설 프로젝트 등
- (필리핀) '14년 인프라 및 건설 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40% 증액

9) Fast Moving Consumer Goods의 약자로 구매주기가 짧아서 빠른 속도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 또는 일용품을 지칭한다.

- \* 경전철 확장, 고속도로 신설, 공항 개보수 등 30여개의 대형 프로젝트 진행 예정
- (미얀마)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국제사회 원조로 경제개발 인프라 확대 활성화
- \*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 밀라와, 짜욱푸, 드웨이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 □ 2014년 수출 여건

- 각국의 경제발전 계획 추진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로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반도체 제품도 수출 호조 전망
- (인니) 각종 인프라 건설로 철강제품 수요 증가, '14년부터 개시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적용대상 확대로 의약품 수요 증가 전망
- (싱가포르) 석유제품과 반도체의 말련·인니 등 동남아 주변국 재수출 증가로 수출 양호 전망
- \* 싱가포르의 교역에서 재수출 비중은 50%로 높음
- (베트남) 투자진출·프로젝트·ODA 등으로 구매수요가 발생하는 생산 설비(기계류) 및 원부자재(합성수지)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
- (말련) 건설·플랜트(기계류·화학원료·경유), 고급소비재(자동차) 수출 호조, 철강제품은 공급과잉으로 수출 감소 전망
- (태국) 가정용 전자와 무선통신기기는 수출증가, 자동차는 자국차 세급환급 정책과 철강은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로 수출 감소 전망
- (필리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철구조물·중후판 등 수요 증가 예상
- (미얀마) EU의 경제제재 해제('13. 4월), 봉제업 투자 확대로 기초 원부자재 수요 증가

## 나. 서남아

### □ 최근 경제 상황

-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경기회복 둔화, 스리랑카 성장세 지속
  - (인도) 경상수지·재정 불균형과 루피화 가치 하락(최근 2년간 30% 이상 하락) 등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14년 총선영향으로 회복 기대
    - \* 경제성장 전망치(IMF '13. 10월 기준 %) : ('13) 3.8 → ('14) 5.1
    - \* 인도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FDI) 개방, 금 관세 인상 등의 조치 마련
  - (파키스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10억 달러 규모의 전력부문 부채 미결 등 재정부족 현상 심화
  - (방글라데시)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성장률은 '13년 6.0%로 하향 전망되나 '14년 6.4%로 회복세, 1인 GDP 1,000달러 돌파 기대(IMF)
  - (스리랑카) 안정적 통화운용과 수출지원 정책 등으로 '13년 7.5% 성장

### □ 시장 동향

- (인도) 인프라 시장 활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추진
  - 인도 정부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에 50조 루피(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 수립으로 도시개발·철도·건설 분야 확대사업 추진
    - \* 인프라 부문별 투자비율 : 전력(31%), 통신(25%), 도로(12%), 관개(10%), 철도(7%)
  - 인프라 확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완화
    - \* 인도 정부는 건설과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철수 규제 완화 방안 발표, FDI 최소자본 축소(1,000만 → 500만 달러), 철도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허용 결정
  - 석탄 부족과 원유가 상승에 따른 전력난으로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력·스마트그리드 투자 확대
    - \* 최근 5년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성장률은 세계 5위, 친환경 장비산업은

- 매년 10~12% 성장률로 지속적 확대
- \* 라자스탄주에 세계 최대규모(4,000MW)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3,000억 루피) 건설 계획
- (파키스탄) 화력과 수력 등 전력 부문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가능성 기대되나, 미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은 신규 투자 걸림돌
- (방글라데시)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소비재 수출 증가 기대
  - '10년 이후 월 40달러 수준이던 최저임금을 100% 내외 인상 예상
- (스리랑카) 브랜드 및 고급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패턴 추세
  - 자동차·의류 등 완제품은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요 증가

#### □ 2014년 수출 여건

- (인도) 루피화의 대미환율은 '13년 8월 최저치 68루피 기록 후 조금씩 회복세이나, 달러대비 60 루피 수준 지속으로 수출 둔화 예상
  - 루피화 하락에도 가정용 전자 등은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수출 양호, 석유화학 부문도 지속적으로 수요로 호조 전망
  - \*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거래선 확보와 대금 지불 지연 등의 이유로 '13년 1~10월간 철강( $\Delta$ 18.4%), 자동차 부품( $\Delta$ 17.6%) 등은 수출부진
- (파키스탄) 철강·의료기기·석유제품·가정용 전자 등은 꾸준한 수요로 수출 양호 예상
- (방글라데시) 제조업의 성장과 고도화로 산업부문 투자 확대, 관련기계류, 부품, 생산 라인의 수입수요 증가 예상
- (스리랑카) 호텔·복합건물·카지노 등 대형건축물 공사에 따른 건축기자재 수요 증가 전망
  -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자동차·전자제품·기계 등에 높은 관세 부과함에도 현지 수요는 증가세 유지

## 다. 대양주

### □ 최근 경제 상황

- 호주는 광물 국제가격 하락으로 성장세 둔화, 뉴질랜드는 적자 속 완만한 증가세
  - (호주) 광산세 폐지 및 법인세 인하는 긍정적으로 작용, 광물 국제가격 하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 GDP 성장률 전망(%) : ('13) 2.25 → ('14) 2.5~3.0 (IMF)
  - (뉴질랜드) '13년 3분기까지 7.7억 뉴질랜드 달러 무역적자, 웰링턴 지진 재건까지 겹쳐 재정악화(재정적자폭 GDP의 4.8% 수준) 예상

### □ 시장 동향

- (호주) 시드니를 중심으로 주요도시의 급격한 부동산 시장 성장
  - 꾸준한 신규 수요와 역대 최저금리(2.5%)로 대출비용 감소로 '14년 부동산 호황 예상
  - \* 시드니는 '13년 9~12%, '14년 15~20%의 가격 상승 예측
  - 신규주택 건설도 증가로 건설자재 및 장비 시장 확대 기대
- (뉴질랜드) 스마트폰 보급률 50% 확대 및 IT시장의 급성장
  - '14년 4G 서비스 본격 실시, '19년까지 전 국민의 80% 대상 100 Mbps 초고속 인터넷 보급 계획으로 스마트폰·태블릿 PC·관련 IT기기 등의 수요 증가 예상

### □ 2014년 수출 여건

- (호주) 경제성장 둔화와 일본의 엔저로 자동차·가정용 전자 등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에도 우리제품의 좋은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수출 개선 기대, 정유시설 노후화로 해외로부터 석유 제품 수입수요도 증가 전망

- (뉴질랜드)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기계·자동차 수요 지속, 지진 재건사업으로 인한 건설자재와 석유화학제품도 수출 호조 전망

6

**중동 [8.4% 증가] \* 북아프리카 제외**

중동 경제는 산유국이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쿠웨이트에 300억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발주가 계획되어 있는 등 프로젝트 수요가 많고, 이란의 핵 협상 타결로 對이란 교역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13년 △3.1%에서 '14년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경제 상황

- 중동 산유국 경제는 성장세, 비산유국은 경기 둔화
  -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등) 고유가로 재정흑자 및 경제활성화 기대
  - \* 경제성장률 전망치(%) : 산유국 ('13) 1.9 → ('14) 4.0, 비산유국 ('13) 2.8 → ('14) 3.1 (IMF)
  - (UAE)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생산 동결 시사, GDP는 전년대비 10% 감소 전망
  - \* 서방의 이란 경제제재<sup>10)</sup> 해제시 UAE는 재수출의 기지로서 호황 기대
  - 시리아 내전 이후 레바논·요르단 등 주변국 불안한 정세로 경기둔화
- 산유국 시장의 非석유 분야 성장 예상
  - (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非석유 분야 활성화 기대
  - (사우디) 산업다각화를 추진하여 원유의 의존도를 낮추고, 비석유 부문의 성장('13년 7.6% 성장)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추진

10) '13년 1~10월 한국의 對이란 원유 수입은 4,28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6.0% 감소

## □ 시장 동향

-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지속으로 연계 수요 증가
  - (사우디) 건설·플랜트, 헬스케어, 교육 등 각종 프로젝트 발주 진행
    - \* 우리나라의 사우디 수주 규모는 누적기준 1,707건, 1,186억 달러 규모로 1위 수주시장
  - (쿠웨이트) 석유화학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정유공장 건설 및 기존 설비 현대화 등 설비 프로젝트에 약 300억 달러 규모 투자 등
    - \* 주요 프로젝트 : 제4차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 정유공장 설비 현대화(Clean Fuel) 프로젝트, 부비안 항만 프로젝트, 쿠웨이트 공항 제2터미널 프로젝트 등
  - (카타르) 지하철·상수도·전력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로 관련품목 수입수요 증가
    - \* '13년 우리나라의 수주액 245억 달러 중 240억 달러 이상이 지하철 인프라 사업에 집중
- 유통산업 활성화 및 소비시장의 변화
  - (UAE) 관광산업 활성화와 유입인구 증가로 글로벌 유통기업 진출 활발
    - \* UAE 소매유통 시장규모는 '12년 매출액 기준 310억 달러로 '17년까지 연평균 12.3% 성장 전망
  - (사우디) 중산층 확대 및 소득수준 증가로 쇼핑몰 등 소매시장 성장
    - \* 사우디 소매유통 시장은 '12년 기준 816억 달러, '16년까지 1,064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터키, 쿠웨이트) 소득격차로 인해 민간 소비의 양극화 현상 심화
  - (오만) '13년부터 'ICV(In Country Value)' 도입으로 자국제품 소비 확대 추진
  - (이라크) 對이라크 수출은 두바이·요르단 등을 통한 우회수출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직수입을 선호하는 수입상이 증가하는 추세

## □ 2014년 수출 여건

- 경기회복세 전환으로 수입 수요 증가 전망
  - (사우디) 외국인 근로자와 저소득층 중심의 소형·준중형·중형차 인기로 자동차 수요 증가
    - \*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 자동차 수출 대상국가로 '13년 1~10월 수출증가율 15.1%
  - (UAE) 저가의 중국산(기계, 섬유 등)과 엔저의 일본제품(자동차) 영향으로 완만한 수출 증가 전망
  - (터키) 對 유럽 무역의존도가 높아 유럽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출 성장세 기대, 한-터키 FTA 발효('13. 5월)로 교역규모 확대 전망
  - (이스라엘)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휴대폰 수입수요 대폭 증가, 컴퓨터·가정용 전자는 부가세 인상으로 수입 감소
  - (오만) 젊은 소비자의 한국산 자동차 구매 증가(對 오만 수출의 45% 비중) 및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설자재 수요 증가 예상
  -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국제규제가 완화될 경우 레바논 경제에 긍정적 영향 전망
- 이란은 핵협상 타결로 앞으로의 정치·경제적 개선 움직임에 따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7 | 중남미 [1.9% 증가]

미국의 경기회복, '14년 브라질 월드컵 특수 등은 중남미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광물·식량 등의 수요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은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은 '13년  $\Delta 0.1\%$ 에서 '14년 1.9%로 소폭 증가 전망

## □ 최근 경제 상황

- '13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중남미 경제에도 영향
  - (브라질) '13년 GDP 성장률 2.5%에서 '14년은 3.5% 상향 전망
    - \* '14년 월드컵과 '16년 하계올림픽 개최 효과
  - (멕시코) 재정지출 감소와 美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13년 성장률은 1.2% 예상
    - \* 멕시코 GDP 성장률 전망(%) : ('13) 1.2 → ('14) 3.0 → ('15) 3.5% (IMF)
  - (칠레)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 수요 감소로 '14년 성장률 4.0%로 하향

## □ 시장 동향

- 중산층 성장으로 품질과 브랜드를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확산
  - (콜롬비아) 중산층 확대 및 소득증가로 품질 위주의 소비패턴 확산
    - \* 고급화 트렌드로 가전제품 시장은 372억('13년)에서 '16년 600억 달러 예상
  - (파라과이) 젊은 층의 중고가 수입브랜드 구매 증가 확산
    - \* 파라과이는 전체인구의 70% 이상이 30대 이하의 젊은층

## □ 2014년 수출 여건

- 중남미의 각종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14년 완만한 증가세 기대
  - (브라질) 자국제품 의무사용 및 공업세 조정으로 자동차 수출 둔화 우려, 현지 부품생산 장려 정책에 따라 기계 수요는 증가 전망
  - (멕시코) 반덤핑관세 부과로 한국산 철강제품은 수출 부진 예상
  - (아르헨티나) 완제품 수입규제로 부품수요 증가, 정유기술 부족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입에 의존
    - \* 가전제품 對아르헨티나 수출액 '13년 1~10월 전년 동기대비 112.9% 상승

8

CIS [3.7% 증가]

러시아의 3%대 완만한 성장세로 우리나라의 對CIS 수출은 '13년  $\Delta$ 2.7%에서 '14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경제 상황

- 러시아 및 CIS 경제 전반적 회복세
  - 러, 고정자본투자 및 산업생산성 개선으로 3% 내외 성장 전망
    - \* GDP 성장 전망치(%) : ('13) 1.5 → ('14) 3.0 (IMF)
  - 우크라이나는 EU가입 추진에 따른 러시아와의 갈등,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 회원국인 러시아 경기가 변수로 작용

□ 시장 동향

- 정부 주도 프로젝트 진출 및 무선통신기기 시장 유망
  - (러시아) LNG 상용차 개발, 가스차 충전소 설치 적극 추진, 러정부의 폐기처리 의무·재활용에 대한 강한 의지 등 해당시장 확대 예상
    - \* '대체에너지 발전법령' 총리 서명('13. 5월), 하원의 '산업 및 생활쓰레기 처리법' 검토 움직임
  - (카자흐스탄)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추진
    - \* 석유화학단지(우즈베키스탄), 광산개발(카자흐스탄), 건설프로젝트(아제르바이잔) 등도 유망

□ 2014년 수출 여건

- 주요 수출 대상국 러시아의 경기회복으로 완만한 수출 예상
  - (러시아) '13년 부진했던 자동차 對러 수출은 '14년 우리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으로 현상유지, 자동차부품·화물자동차의 수출은 증가 전망
    - \* 합성수지·아연도강판·건설중장비 등은 현지업체 경쟁력과 재고 과다로 수출 감소 예상
  - (우크라이나) 제조업 발달과 의료현대화 등으로 원부자재, 의료기기 수출 유망
  -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수출 지속 성장 및 산업고도화로 합성수자기계 등 증가 예상

## 9

## 아프리카 [1.3% 증가] \*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對 아프리카 수출은 '13년  $\Delta 6.2\%$ 에서 '14년 1.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최근 경제 상황

- '13년 경기 위축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경제여건 개선 기대
  - 북아프리카지역은 불안한 정국 가운데 경기 회복세 기대
    - \* 경제성장률 전망(%) : 이집트 ('13) 1.8 → ('14) 2.8, 알제리 ('13) 3.1 → ('14) 3.7 (IMF)
    - \* 이집트는 임시정부 및 내각 출범으로 대대적 경기부양 추진
  - 사하라 이남 지역의 프로젝트 발주 및 산업발전 장려 추진
    - \* 경제성장률 전망치(%) : ('13) 5.0 → ('14) 6.0 (IMF)
    - \* 남아공은 '14년 총선으로 사회혼란 예상, 세계 최대 백금 생산회사 인원감축 발표로 광업 둔화 조짐

## □ 시장 동향

-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및 인프라 구축 확산
  - (남아공)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본격화
    - \*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21%), 원자력(12.7%), 수력(5.3%) 등으로 보완
  - (모로코) 정부의 SOC 투자로 물류·어업·농업·항만·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케냐, 탄자니아) 에너지·교통 등 공공민간합작프로젝트(PPP) 확대 추진
    - \* 케냐 리무항 3선석 공사, 나이로비 경전철 사업 등 PPP 프로젝트 46건 '14년 본격 추진 예정
- 내수시장 상황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 (이집트) 1회용 상품소비 50% 성장, 젊은 층 인구증가로 과시형 소비문화 확산

## □ 2014년 수출 여건

- 중산층 확대와 IT시장 성장으로 가전·무선통신기기 수출 기대
  - (이집트) 스마트폰 수요 급등, 젊은 층의 구매 증가 예상
  - (알제리) 3G 서비스 제공으로 가전 및 통신기기 수요 증가
- 현지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자동차 수출시장 둔화 우려
  - 수단·수단의 수입차 관세 인상, 알제리의 현지산 자동차 세금 면제 등

### Ⅲ. 2014년 지역별 수입 여건

#### 1 | 북미 [6.1% 증가] \* 미국, 캐나다

##### □ (미국) 수입 수요 제한적 증가 전망

- 소비재 수입수요 제한적 증가, 원자재 및 자본재는 다소 호조
-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 수입 감소 추세이나 점차 회복 전망
- \* 수입액('13. 1~10월, MPI 3단위) : 반도체  $\Delta$ 12.8%, 반도체제조용 장비  $\Delta$ 37.9%
- 한미 FTA에 따른 대두·밀 등의 곡실류 수입증가세는 지속
- \* '13년1~10월 전체수입액은  $\Delta$ 7.5%, 대두(44.5%), 밀(4.8%) 수입 증가

##### □ (캐나다) 한-미 FTA 영향으로 對캐나다 수입에 영향

- (축산물) 육류는 미국산 대비 최대 20% 이상 관세차이, 수입 부진 예상
- (원자재) 석탄과 광물자원 등 주요품목은 글로벌 수요회복으로 소폭의 수입증가 가능성 기대

#### 2 | 중국권 [12.4% 증가] \* 중국, 홍콩, 대만

##### □ (중국) 중국産 철강 수입 부진, 가전제품 증가

- '11년부터 對中 철강수입 둔화 지속, '14년도 수입수요 하락 전망
- \* '13년 1~9월 對中 철강 수입은 74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9% 감소
- 중국의 부동산 정책과 급여 인상 등의 요인은 '14년 중국 가정용 전자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 및 수출 활성화 예상

##### □ (대만) 대만産 LCD, 반도체 수입 호조 예상

- 국내 태블릿PC, 스마트폰 수요증가로 LCD 및 반도체 수입 증가 예상

-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저가 AP칩 수요증가 기대
- 다만, 철강제품 수입은 중국시장의 변수와 국제가격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석유화학 및 섬유는 현상유지 예상

### □ (홍콩) 중국産 전자제품 및 면직물, 홍콩産 의류 수입 증가 예상

- 홍콩 경유 중국産 제품 수입 활발
  - 광동성 원산지 전자제품, 부품, 회로 등은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 납품 증가 추세
  - 한국 의류의 높은 수요로 중국産 섬유원단 수입도 성장세 지속
    - \* 단, '13년 4분기 홍콩 경유 물동량은 광동성 제조업 소폭 위축과 글로벌 기업 신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 다소 둔화 예상
- 홍콩의 주요 수출 품목인 모피의 수입 증가 전망
  - 홍콩에서 최후 가공되는 일부 특수소재 섬유의 한국 수출도 증가

## 3 | 유럽 [10.8% 증가]

### □ 한-EU FTA 효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전망

- 유럽 브랜드에 힘입어 자동차와 석유제품의 수입 활발
  - 관세 인하 효과로 항공기 및 부품과 계측제어분석기 등 수요 증가
    - \* '13년 1~10월 對EU 항공기 및 부품의 수입증가율은 전년대비 497.9% 상승
- 중동 정세불안으로 북해산 원유의 수입수요 증가
- 네덜란드産 우라늄 수입은 전년대비 95.5% 증가
  - \* '13년 1~10월 기준 우라늄 수입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비중은 46.3%
- 유럽 제약회사의 농약 및 의약품 수입도 호조세
  - \* '13년 1~10월 對EU 수입액은 1,88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3% 증가

## 4 | 일본 [8.1% 증가]

### □ 엔저로 인한 부품소재의 對日수입 확대 전망

- 엔저로 일본 제조기업의 지속적 가격경쟁력 회복
  - 엔고로 조달이 어려운 품목도 수입 가능성 증대
    - \* A사, 가격조건 개선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선 전환 검토
    - \* 일본은 엔저효과로 수출실적 증가로 전환 : (6월)△7.3%, (7월)1.8%, (8월)1.9%
-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판매 증가로 인한 관련 일본産 부품 수입 증가

### □ 한국내 일본계 투자 제조기업의 생산 증가의 영향

- 일본, 중대형 투자를 위주로 한국에 투자 지속
  - '12년 對日투자유치 금액은 45.5달러로 역대 최대치
  - 국내 대기업에 부품소재 납품 투자 증가
    - \* TOK·신에츠 (반도체PR 생산), 일본전기초자 (OLED패널) 등
    - \* 對日 수입(%) : ('10) 30.1 → ('11) 6.3 → ('12) △5.8 → ('13.9월) △6.3

## 5 | 아시아 [8.4% 증가] / 대양주 [0.8% 감소]

### □ (동남아) 원자재, 소비재 중심의 수요 증가세

- 국제 수급여건 및 국내 수요로 원자재 수입 급증, 소비재 등 공산품 수입 또한 전반적 증가 예상
  - (싱가포르) 중유·석유화학 중간원료의 수입 증가세 지속
  - (인니) 원유 및 천연가스, 유연탄의 완만한 수입수요 증가
  - (베트남) 신발·의류 등 소비재와 원유, 목재 제품 수입량 상승
  - (말레이시아) 현지 국영기업과 장기계약으로 천연가스 안정적인 공급

- 반도체의 수입도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 중심으로 증가 전망
- \* '13년 1~10월 반도체 수입증가율(%) : 싱가포르 22.0, 필리핀 : 14.9

#### □ (서남아) 석유제품 등 원부자재 수입은 둔화 예상

- (인도) 인도 1위 수입품 나프타의 수입은 '13년 9월 기준 전년대비 33.3% 하락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출장려로 회복세 전망
- (파키스탄) 수입 상위품인 광물연료도 '13년 9월 기준 전년대비 -59.0% 하락, 수입 둔화 전망
- (방글라데시) 對최빈개도국(LDC) 특혜관세가 95%로 확대되면서 수입 증가, 의류·가죽·비철금속 등 증가 예상

#### □ (대양주)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수입 둔화

- (호주) 철광·석탄·원유 등 주요 수입품목의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로 수입 부진, 다만 육류 수입은 국내 수요증가 예상
- (뉴질랜드) 한국의 수입다변화로 수입이 전년도 대비 감소 예상되나, 목재류·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요는 양호할 전망

## 6

### 중동 [5.6% 증가] \* 북아프리카 제외

#### □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완만한 증가세

- 국제정세 불안과 제재정책 등으로 원유 수입 현상유지
  - (이란) 美 국방수권법과 신규 행정명령 발효에 따라 이란産 원유 수입 제한('13.7월), 핵 문제 타결로 對이란 수입 증가 전망
  - \* '13년 1~10월 對이란 원유 수입은 전년대비  $\Delta$ 16%, LPG  $\Delta$ 84.9%
  - (사우디, 쿠웨이트) 원유 생산 감소로 수입둔화, 나프타·LPG 등 수요 증가
  - (이라크) '13년말 원유 정제시설 개보수로 생산량 증가 전망

## 7 | 중남미 [3.9% 증가]

### □ 중남미産 원자재 수입수요 감소 및 증가세 둔화

- 동광·철광석 등 주요 광물자원 수입은 산업경기 하향으로 정체 전망
  - \* '13년 1~10월 對중남미 수입액(달러, 전년대비) : 동광 1,879백만(△16.5%), 철광 1,528(△33.5%), 동제품 1,449(△15.8%)
  - \* 한국-콜롬비아 FTA 발효시 유연탄 수입 재개 가능성
- 사료 등 식물성물질, 대두와 옥수수 등 곡실류 수입 소폭 상승 예상
  - \* '13년 1~10월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 식물성물질 113.1, 곡실류 55.8

## 8 | CIS [6.2% 증가]

### □ 원유 수입 개선 및 광물자원 수입 둔화 전망

- 러시아의 동북아로 진출, ESPO(동시베리아 송유관)産 수입 소폭 증가 전망
  - \* '13년 1~9월 對러 원유 수입 3,905백만 달러(작년 동기대비 24.4% 증가)
- 한국 철강 및 건설산업 위축으로 비철 및 철스크랩 수입수요 감소
  - \* '13년 1~9월 對CIS 전년 동기대비 수입 : 알루미늄 △37.1% 합금철선철·고철 △20.3%
- 對우크라이나 정밀화학원료·곡물 등 수입 점차 증가 전망

## 9 | 아프리카 [12.6% 증가]

### □ 수입 비중이 낮으나 전반적인 수입 수요 증가

- 천연가스 및 나프타의 수입은 증가, 원유·철광 등은 현상유지 전망
  - '13년 1~10월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액은 4.6% 증가
  - \* 품목별 수입증가율('13년 1~10월, 전년동기대비) : 천연가스 59.2%, 원유 △15.6%
  - \* 북아프리카 나프타 주요수입국(증가율, %) : 알제리(254.8), 이집트(65.9) 등

Global Market Report 13-068

2014년 지역별 수출입 전망 및 시장여건

발 행 인 | 오영호  
편 집 인 | 김성수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3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